

退溪의 泉石膏肓과 賞心

손 오 규*

〈목 차〉

- | | |
|-----------|--------|
| I. 序 論 | IV. 賞心 |
| II. 泉石膏肓 | V. 結 論 |
| III. 獨善山林 | |

I. 序 論

퇴계의 문학을 논하면서 그 동안은 이념미에 편중된 경향이 다소간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퇴계는 문학 특히 시를 논함에 있어 서정의 영역을 일차적으로 중요시하였으며 이러한 서정의 영역을 언급함으로써 오히려 심學的의 중요성과 그 체험의 즐거움을 일깨웠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산수를 소재로 하여 산수미를 노래한 퇴계의 시가를 서정과 이념이 융합된 미학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그의 산수시가에서 형상화하고 있는 서정과 미의 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 제주대 교수

Ⅱ. 泉石膏肓

이런돌 엇다흐며 저런돌 엇다흐료
草野愚生이 이러타 엇다흐료
흐물며 泉石膏肓을 고타 무슴흐료 (陶山十二曲)

草野愚生의 泉石膏肓은 退溪 자신의 도산은거를 의미한다. 원래 泉石膏肓은 산수애호를 의미한다. 이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활로 실현되면 그것은 벼슬을 버리고 산수간에 묻혀 산수를 벗삼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곧 隱居이다. 따라서 이 천석고황은 퇴계가 도산에 묻혀 살아가는 즐거움을 노래한 「도산십이곡」의 基層을 이루어 퇴계의 산수문학을 탄생시키는 所以然이기도 하다.

그런데 퇴계에게 있어 은거는 관직에 있으면서도 늘 동경의 대상이었는데, 은거에 대한 의지는 그가 42세 때 災害를 시찰하는 어사로 임명되어 강원도에 가서 지은 「過淸平山有感」의 序에 잘 나타나 있다. 먼저 淸平산의 위치와 명칭의 유래에 대하여,

춘천의 淸平산은 곧 옛날의 景雲산이다. 前朝의 이자현이 벼슬을 버리고 이 산에 돌아와 은거하였다. 이 산에는 보현원이 있는데 자현이 그 곳에 거처하면서 문수사라 하고, 景雲산을 고쳐서 淸平산이라 한 것도 또한 자현에서 비롯되었다.¹⁾

라고 하여 淸平산은 이자현의 은둔지로서 퇴계에게 의미 있는 것으로 의식된다. 그리고 이자현의 은둔이 퇴계에게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곧 이자현이 벼슬을 얻고자 하나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은둔을 가장하거나 혹은 더 높은 벼슬이나 은자라는 虛名을 얻기 위해 은둔한 것이 아니라, 부귀를 浮雲같이 여기고 世俗의名利와 執着을 벗어나 오로지 자신의 새로운 생활을 개척하고 자연 속에서 인생의 즐거움을 추구한데 기인하기 때문이다.

1) 『陶山全書』, 一, 卷一, 詩, 過淸平山有感序(영인본, 퇴계학연구원, 1988), p.41.
春川之淸平山 卽古之慶雲山也 前朝李資玄 棄官歸隱于此山 山有普賢院 資玄 就而居之 號曰 文殊寺 慶雲之改號淸平 亦由資玄 而得之也

退溪 山水文學의 泉石膏育과 賞心

자현은 閨閣의 집안에서 자라났으며 風流文雅가 당시에 가장 뛰어났고, 또 일찍이 벼슬하여 높고 중한 지위에 올랐으니, 그가 부귀를 구하고 높은 벼슬을 취하는 것은 땅에 버려진 지푸라기를 줍는 것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榮華를 버리고 지위를 피하여, 濁하고 더러운 속세를 떠남이 매미가 허물을 벗는 듯, 기러기가 만물의 위로 훨훨 나는 듯 하였다.²⁾

윗 글을 살펴 볼 때 퇴계는 이자현의 은둔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뜻을 두지 아니한 자기 의지의 실천이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다음의 글에서 이를 분명히 하였다.

자현이 이 산에 머문 지 37년이나 되는 동안 비록 임금의 겸손한 말과 후한 禮로도 그 절개를 굽히지 못하였고 千駟萬鍾도 그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였다.³⁾

‘임금의 후한 예’와 ‘천사만중’은 곧 세상의 부귀이다. 이에 반해 은둔은 세상의 부귀에 연연하지 아니하는 의지의 실천이다. 뿐만 아니라 이 은둔은 새로운 삶의 개척으로써 그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고 퇴계는 생각하였다.

그 마음이 즐거워하는 바가 없는 사람으로써 어찌 그럴 수가 있겠는가 (중략) 내가 『동국통감』을 읽고 일찍이 史臣이 자현을 논한 말이 그를 몹시 깎아 내리고, 심지어는 그를 가리켜 탐욕이 많고 야비하며 인색하다고 한 것을 괴이하게 여겼다. 아! 어찌 말이 그리 심하던가.⁴⁾

퇴계가 史臣의 評을 괴이하게 여긴 것은 이자현의 은둔에 동감하기 때문일 것이며, 그 동감은 벼슬을 버리고 청평산에 은둔한 이자현의 생활을 동경한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퇴계는 이자현이 은둔을 통하여 얻은 ‘마음의 즐거워하는

2) 『陶山全書』, 一, 卷一, 詩, 過清平山有感序(영인본, 퇴계학연구원, 1988), p.41.

資玄 生長閨閣 風流文雅 冠絕當時 亦嘗筮仕 而登顯要矣 其於求富貴取青紫 不啻如捨地芥然 乃能辭榮避位 高蹈遠引 蟬蛻於濁濊之中 鴻冥於萬物之表

3) 『陶山全書』, 一, 卷一, 詩, 過清平山有感序(영인본, 퇴계학연구원, 1988), p.41.

住此山 蓋至於三十七年之久 雖卑辭厚禮 不足以屈其節 千駟萬鍾 不足以動其心

4) 『陶山全書』, 一, 卷一, 詩, 過清平山有感序(영인본, 퇴계학연구원, 1988), p.41.

非有所樂於胸中者 安能如是哉 (중략) 余讀東國通鑑 嘗怪史臣論資玄之辭 深加貶刺 指至爲貪鄙吝嗇 噫 何其甚也

바'에 대하여

내가 자현이 조정의 부름에 나아가기를 사양한 글을 보니 그 글에 '새는 새로 서 길러 鍾鼓의 걱정을 면하게 하고, 고기를 보고서 고기를 알아 江海之樂을 이루게 하소서' 하였다. 슬프다 세속의 험뜯는 자들이 그 사람의 흥금을 어찌 만 분의 일이나마 엿볼 수 있으리오.⁵⁾

라고 하여 자현은 江海之樂으로 인하여 청평산에 은둔하였으며, 貪鄙吝嗇이라 논평한 史臣을 비롯한 세속의 험뜯는 자들이 이자현의 江海之樂을 알아주지 못함에 대하여 안타까운 심정을 술회하였다. 물론 여기에서의 江海之樂은 청평산의 은둔생활의 즐거움을 의미하는 것이며, 퇴계가 "슬프다 세속의 험뜯는 자들이 그 사람의 흥금을 어찌 만 분의 일이나마 엿볼 수 있으리오"라고 탄식한 것에서 그의 은둔에 대한 동경과 산림생활의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심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따라서 퇴계는 이자현의 은둔은 강해지락을 이루게 하였다고 생각하였으니, 이 江海之樂은 곧 세속적 부귀공명의 집착을 떨쳐버린 생활의 즐거움이라고 하겠다.

江海之樂은 곧 山水之樂이며 樂山水의 생활로서 퇴계는 자신의 도산은거에 대하여

오오! 나는 불행히도 먼 외딴 시골에서 늦게 태어나 樸陋하고 견문이 없으니 山林을 돌아보고는 그 중에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일찍 알았다. 중년에 헛되어 벼슬길에 나아가 世路風埃에 顛倒되어 逆旅推遷하여 거의 스스로 돌아와서 죽지 못할 줄 알았더니 그 후 늙을수록 병이 점점 깊어지며, 行身이 더욱 어려워지니, 세상은 나를 버리지 않았지만 내가 부득이 세상을 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

라고 하였다. "세상은 나를 버리지 않았지만 내가 부득이 세상을 버리지 않

5) 『陶山全書』, 一, 卷一, 詩, 過淸平山有感序, (영인본, 퇴계학연구원, 1988), p.43.

余觀資玄辭就徵表 有曰 以鳥養鳥 庶免鐘鼓之憂 觀魚知魚 俾遂江海之樂 噫 此其爲人之胸次 豈世俗譎譎者 所能窺其萬一哉

6) 『陶山全書』, 一, 卷三, 詩, 陶山記, (영인본, 퇴계학연구원, 1988), p.41.

嗚呼 余之不行 晚生遐裔樸陋無聞 而顛於山林之間 夙知有可樂也 中年妄出 世路風埃顛倒 逆旅推遷 幾不及自返而死也 其後年益老 病益深 行益踳則 世不我棄 而我不得不棄於世

을 수 없었다.”란, 도산은거는 자기 의지를 실천한 것일 뿐 정치적 이유나 또 다른 목적이 없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따라서 도산은거는 퇴계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생의 분기점이었으며 또 다른 삶을 개척하기 위한 의지의 실천이라고 하겠으니, 퇴계가 자신의 벼슬살이하는 것을 ‘나그네’에 비유하면서 “거의 스스로 돌아와서 죽지 못할 줄 알았다.”(幾不及自返而死也)란 말에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은거에 대한 동경은 산수문학에 있어서는 자연에 대한 동경으로 표출되는데, 이것은 자연을 인간세상의 어떤 이상의 존재로 사유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자연이란 인간생활의 場(공간)이며 환경으로서 인공이 가해지지 않은 천연의 모습을 지녔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을 사색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현재의 현상적 굴레를 벗어 던지고 본래의 모습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의 표출이기 때문이다.

인간 본래 모습으로의 회귀는 욕망과 집착을 떨쳐 버린 자아에 대한 깊은 성찰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니 官界에 머물고 있는 퇴계에게 있어서는 독서하는 선비의 신분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이 소로 되돌아 온 퇴계는 다음과 같이 슬회하고 있다.

이에 비로소 樊籠을 벗어나 農畝에 몸을 던지니, 앞에 말한 山林之樂이 뜻밖에 내 앞으로 닥 치었다. 그러니 내가 지금 해묵은 병을 낫게 하고 마음 속 깊은 시름을 환하게 풀고는, 늘그막에 편히 할 곳은 여기를 버리고 장차 어디서 구하겠는가⁷⁾

樊籠이 宦路라면 農畝는 자연이다. 樊籠을 벗어나 農畝에 몸을 던진다는 것은 평범한 인간의 삶으로 돌아오음을 의미하니 곧 초야우생이다. 초야우생은 삶을 도모한다. 그러나 퇴계는 자연에 문혀 삶에 골몰한 것이 아니라 산림지락을 추구하였으니 평범한 초야우생이 아니다. 따라서 퇴계의 도산은거는 사회적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 이것은 자연이 인간에게 사색의 대상이 됨으로 해서 어떤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 인식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퇴계에게 있어서

7) 『陶山全書』, 一, 卷三, 陶山記, (영인본, 퇴계학연구원, 1988), p.41.

乃始脫身樊籠 投分農畝 而向之所謂山林之樂者 不期而當我之前矣 然則 余乃今 所以消積病豁幽憂 而晏然於窮老之域者 舍是將何求矣

도산은거는 자아성찰의 계기이며 또 다른 삶의 개척을 위한 전기로서 산림생활의 표준을 설정하게 되니, 퇴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옛날 山林을 즐기는 사람을 보건대 둘이 있다. 玄虛를 그리워하여 高尚을 섬겨 즐기는 사람이고, 道義를 기뻐하여 心性을 길러서 즐기는 사람이다. 前者를 따른다면 潔身亂倫에 홀려 심한즉 鳥獸와 무리 지어도 그릇된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 두렵고, 後者를 따른다면 좋아하는 바는 糟粕뿐이요 그 전할 수 없는 妙에 이르러서는 구하면 구할수록 얻을 수가 없으니 어찌 즐거움이 있으리오. 그러나 차라리 후자를 위하여 스스로 힘쓸지언정 전자를 위하여 스스로 속이지는 않겠다.⁸⁾

퇴계는 老莊의 산림생활은 潔身亂倫에 빠져들기 때문에 배격하였다. 老莊의 潔身亂倫이란, 노장을 동경하고 이상시하여 관념에 빠져들어 사회의 규범을 도외시한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산림생활에서 느끼는 개인의 情感만을 대단히 중요시하여 이성과의 융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감성에 치우쳤기 때문이다. 즉 문명 의식을 배격하고 소박한 자연의 원래적인 삶의 모습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감상자의 강한 의지(관념)에 의하여 눈 앞에 實在하는 현실공간을 의식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아의 도취적 심리상태에만 의지하여 감성과 이성이 조화된 주체로서의 자아를 정립하지 못한 결과이다. 따라서 모든 산수경물에 자신의 관념을 투사하여 현실공간을 이상화하게 된다.

이 때 정감은 극대화되고 이성을 압도할 만큼 강렬하여 그 균형이 유지되지 못하고 몽롱하고 묘연한 순간적 희열에 현혹되게 되니, 자신이 鳥獸同群하면서도 그것이 올바른 인간적 삶이며 또한 밝고 분명한 의식상태에서 비롯한 가치로운 삶인가에 대한 판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潔身亂倫이라고 하겠다. 노장의 유파들은 인간내면에 있는 천연적인 것을 대단히 중요시 여겨 일체의 인공과 인위를 배격한다. 인간의 이성에 대한 행위나 판단조차도 인위적인 것으로 취급하며, 인공이 가해짐이 없이 존재하는 일체의 현상을

8) 『陶山全書』, 卷三, 詩, 陶山記, (영인본, 퇴계학연구원, 1988) p.41.

觀古之有樂於山林者亦有二焉有慕玄虛事高尚而樂者有悅道義頤心性而樂者由前之說則恐感流於潔身亂倫而其甚則與鳥獸同群不以為非矣由後之說則所嗜者糟粕耳至其不可傳之則愈求而愈不得於樂何有雖然寧爲此而自勉不爲彼而自誣矣

천연적이며 자연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그래서 모든 인위적인 행위를 벗어나 천연적이며 자연적인 삶을 지향한다.

그런데 퇴계는 성리학자이다. 그래서 퇴계는 이성을 모든 행위의 판단과 실천의 기준으로 삼으며, 자신의 정감을 이성적으로 적절히 통제하고, 상호융화를 통하여 균형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려고 한다. 따라서 퇴계에게 있어 감성과 이성은 항시 불가분의 관계에서, 어떤 때는 감성을 우선하기도 하고 혹은 이성을 우선하기도 한다. 산수문학에 있어서는 물론 감성을 우선하며, 산수경물에서 느끼는 정감을 매개로 하여 이상가치를 형상화한다. 그런데 위의 인용문에서 자신의 산림생활의 표준을 마련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태도에 대한 판단이며 목표의 설정이다.

이것은 퇴계가 자신의 산림생활의 이상적인 모습에 대하여 언급한 것이니, 오직 道義를 기뻐하여 心性을 길러 즐기는 도학자의 산림생활을 표준으로 삼았다. 도의를 기뻐하여 심성을 길러 즐기는 방도는 학문이다. 따라서 퇴계의 산림생활은 세속을 벗어난 한가로움에서 학문하는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니, 도산은거가 비록 외형상으로는 세상을 저버리고 은둔한 노장적 삶을 지향하는 듯도 하지만 실지로는 세상의 名利를 버리고 학문의 진리를 궁구하는 철저한 도학자의 삶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퇴계가 노장의 산림생활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산림생활의 표준을 밝힌 것은, 당시 은둔자들 중에는 노장에 심취하는 경향이 더러 있었음을 지적하고자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산림생활을 老莊의이라 비난하는 잘못된 시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기도 하다.

Ⅲ. 獨善山林

이것은 陶山隱居의 동기를 살펴봄으로써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 퇴계는 자신의 도산은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신이 돌아간 것은 그 또한 사정이 딱해서 의리로 변동한 것이니 궁하고 부득이한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일시에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진실로 괴이한

바 비방하는 소리가 번잡하게 일고 험뜰고 책망함이 답지하니 어떤 이는 好名을 위함이라 하고 어떤 이는 疴病이라 하며 어떤 이는 山禽에 비유하고 혹 異端이라 배척하였습니다.⁹⁾

퇴계는 자신의 은거가 隱士라는 虛名을 위함도 아니며 老莊에 치우침도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사정이 딱하여 義理로 변통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그 義理는 무엇인가.

첫째는 稱病이다. 즉 신병에 의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함을 여러 곳에서 누차 언급하고 있다.

둘째는 事君之道에 어긋날까 두려워해서이다.

신이 비록 아는 것이 없으나 어릴 때부터 事君之道를 講聞하였으니 어찌 수레에 멍에 매우기를 기다리지 않고 신 신기를 기다리지 않는 것이 신하된 자의 공손함임을 알지 못하리오. 그 一隅을 固守하여 못 비난과 積疑之中에 처하면서도 마음을 바꿀 줄 모르는 所以는 그 나아감이 크게 事君之道에 어그러짐이 있을까 정히 두려워함입니다. 무엇을 義라 하느냐 하면 일의 마땅함입니다. 그런즉 諱愚竊位를 가히 마땅하다 하겠으며 病廢尸祿을 가히 마땅하다 하겠으며 虛名欺世를 가히 마땅하다 하겠으며 知非冒進을 가히 마땅하다 하겠으며 不職不退를 가히 마땅하다 하겠습니까. 이 다섯 가지의 마땅하지 못함을 가지고서도 조정에 선다면 신하된 義가 어찌하겠습니까. 따라서 신이 감히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다만 義라는 한 글자를 成就하고자 할 따름입니다.¹⁰⁾

즉 신하로서 事君의 道는 반드시 義에 적합하여야 하는데, 퇴계는 諱愚竊位, 病廢尸祿, 虛名欺世, 知非冒進, 不職不退의 다섯 가지가 義에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벼슬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니, 이는 자신의 문제에 국한하지만 결국은

9) 『陶山全書』, 一, 卷六, 疏, 戊辰辭職疏 一 (영인본, 퇴계학연구원, 1988), p.166.

臣之妄歸 其亦理極義變 出於迫不得已也 而一時物情 固所咸恠 詭論煩興 皆責沓至 或以爲好名 或以爲伴病 或比於山禽 或斥異端

10) 『陶山全書』, 一, 卷六, 疏, 戊午辭職疏 (영인본, 퇴계학연구원, 1988), p.163.

臣雖無識 自少講聞事君之道 豈不知不俟駕 不俟屨之爲恭哉 其所以苦守一隅 處群非積疑之中 而不知變者 正畏其進 大有垂於事君之義也 何謂義 事之宜也 然則諱愚竊位 可謂宜乎 病廢尸祿 可謂宜乎 虛名欺世 可謂宜乎 知非冒進 可謂宜乎 不職不退 可謂宜乎 持此五不宜 以立本朝 其於爲臣之義 何如也 故 臣之不敢進 祇欲成就一義字而已

사회의 紀綱에 관계되는 사회윤리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셋째는 분수를 지키기 위함이다. 천하가 태평하고 仁君이 보위에 있어 도가 행해지더라도 선비된 자는 모름지기 자신의 분수를 헤아려 출사하거나 물러나거나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제 조정에서 매번 賢人之招로써 愚臣을 부르시니 愚臣이 두렵고 의혹되고 위축되어 사양하고 피하며 遷延함이 어찌 분수의 당연함이 아니리오.¹¹⁾

이것은 士는 자신의 분수를 헤아려 행동하고자 하는 조심과 경계가 따라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넷째 자신의 進退辭守는 풍속의 성쇠에 관계되므로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옛날 맹자가 齊 宣王께 말씀하시되 좌우가 모두 현인이라 하더라도 등용할 수가 없고 여러 大夫가 모두 현인이라 하더라도 등용할 수가 없다. 國人이 모두 현인이라 한 연후에 살펴서 현인임을 안 뒤에 등용하여 쓰소서 하였습시다. 宋儒 朱熹도 말씀하시되 사대부의 辭受出處之得失 은 곧 풍속의 성쇠에 관계되니 더욱 살펴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였습시다.¹²⁾

퇴계는 자신의 進退辭受로서 풍속을 바르게 하려고 한 의도가 엿보인다. 즉 賢者를 조정에 기용함에 있어서 임금의 厚意가 내렸을지라도 선비된 자가 자신의 학식, 재덕, 그리고 수신의 정도를 헤아려 벼슬을 받고 사양하고 나아가고 물러남을 정하여야 한다. 이는 오직 선비로서의 염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임금의 은명이 거듭하여 퇴계 자신에게 내리면 내릴수록 그 정도가 자신의 분수에 어긋나는 까닭에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는 어떤 이익을 도모하거나 다음에 크게 나아가는 발판을 삼기 위해서가 아니며 또한 명예를 얻기 위함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사대부가 향리에 물러나 있음도 나라 안

11) 『陶山全書』, 一, 卷六, 疏, 戊午辭職疏 (영인본, 퇴계학연구원, 1988), p.163.

今朝廷 每以賢人之招 招一愚臣 愚臣之惶恐畏縮 辭避遷延 豈非分守之當然哉

12) 『陶山全書』, 一, 卷六, 疏, 戊午辭職疏 (영인본, 퇴계학연구원, 1988), p.163.

昔孟子告齊宣王曰 左右皆曰賢 未可也 諸大夫皆曰賢 未可也 國人皆曰賢 然後察之 見賢焉 然後用之 宋儒朱熹氏之言曰 士大夫辭受出處之得失 乃關風俗之盛衰 尤不可以不審

선비들의 기강을 확립하고 선비의 도를 확립하고 지키는 것이므로 이 역시 治道の 勢를 펴는 것이기에 퇴계는 옛 성인의 도를 따라 의에 맞게 행동하고 그 행동이 禮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고자 함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인재를 등용하고 버리는 올바른 도가 실현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퇴계의 의도는 자신의 은거가 국정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修德과 進退辭受의 태도를 분명히 함으로써, 선비는 오로지 벼슬하기 위하여 독서한다는 잘못된 풍속을 바로 잡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퇴계가 도산에 隱者로서 避世保身하기 위한 거처를 마련하지 않고 서당을 세워 문도들에게 학문을 강론한 사실이나, 풍기군수 재임 시 白雲洞書院에 紹修書院이란 사액을 받게 한 것을 시발로 도산은거 시에 벌인 서원창건, 예안향약을 만든 사실 등 학문을 통하여 풍속을 바르게 하고자 애쓴 노력들에서 알 수가 있다. 따라서 퇴계는 자신의 분수를 지켜 進退辭修를 분명히 함으로써 학문의 공효를 治世에만 두지 않고 修德을 통한 풍속의 교화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다. 그리고 풍속의 교화는 士風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임을 강조하였다.

비록 신과 같이 어리석고 죄가 있는 사람도 그 진퇴사수기간에는 시비흑백의 분별이 없을 수 없습니다. 대저 신은 先王이 계실 때 여러 번 소명을 받았는데 그 전의 세 번 부르심은 모두 벼슬의 품계가 깎이어서 혐의가 별무하였기에 신은 명을 듣고 곧 길을 떠나 지체하고 나아가지 아니한 때가 없었습니다. 오직 그 뒤의 두 번의 부르심은 혹 품계를 올려 중책을 맡기려 하시고 혹은 이미 품계를 올려 중임을 내려주시니 신의 菲材瑣力으로 모기가 산을 짊어진 것 같아 결코 감당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다만 이뿐만이 아니라 본래 작은 것을 사양하였으나 끝 내 작은 벼슬을 사양함으로써 큰 벼슬을 받았으며, 본디 罷退를 간절히 청하였으나 마침내는 물러남으로 인하여 나아감을 피하였으니 그 일의 詭詐叨濫이 옛 사람의 소위 巧宦捷徑보다 더 심함이 있습니다.¹²⁾

12) 『陶山全書』, 一, 卷六, 疏, 戊辰辭職疏 -- (영인본, 퇴계학연구원, 1988), p.166.

雖以如臣之愚且有罪 其於進退辭受之間 不可以無是非黑白之分焉 抑臣在先王朝 屢被召命之下 其前之三召也 皆官降其品 別無嫌礙則 臣聞命即行 未嘗有遲疑不進之時矣 惟其後之兩召也 或將陞秩而擬重責 或已陞秩而授重任 以臣之菲材瑣力 如蚊負山 決知其不能堪矣 非但此也 本辭其小 而卒乃階以受大 本乞罷退 而竟至因退而謀進 其事之詭詐叨濫 有甚於古之所謂巧宦捷徑之爲者

퇴계는 巧宦捷徑의 士風을 바르게 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퇴계는 자신이 進退辭受를 분명히 함으로써 巧宦捷徑하는 조정의 士風 즉 좀더 높은 벼슬로 나아가기 위하여 벼슬에서 물러나는 詭詐叨濫을 바르게 하고자 하였다.

이상을 살피 볼 때 퇴계의 도산은거는 세상을 피하여 숨어살고자 하는 은둔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도덕적 善을 실행하고 사회적으로는 義를 성취하고자 하였으니, 이는 유가의 선비로서 道義를 실현함이다. 특히 퇴계는 도산은거 이후 순수학문에 沈潛하여 그의 생애에 있어 學問大成이라는 생의 목표를 성취하였으니, 도산은거는 避世保身이라는 현실도피적이며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삶을 개척해 나가 後世에 崇慕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이 적극적인 삶을 위하여 선택한 방도가 또한 학문이다.

이러한 退溪의 삶을 栗谷은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哭退溪先生

良玉精金같은 타고나신 氣質의 순수함이며
학문의 참된 근원은 關閩에서 갈리어 나왔도다
백성은 上下가 하나같이 은혜입기를 바랐건만
종적은 山林에 묻혀 獨善하는 몸이 되셨네
호랑이는 가고 용도 죽어 人事는 변하였으나
물결을 돌려 길을 여신 著述이 새롭구나
南天이 渺渺하고 幽明이 다르니
서해 물가에서 눈물이 다하고 창자가 끊이는 듯

良玉精金粟氣純 眞源分派自關
民希上下同流澤 迹作山林獨善身
虎逝龍亡人事變 瀾回路關簡編新
南天渺渺幽明隔 淚盡腸摧西海濱¹⁴⁾

山林獨善은 퇴계의 도산은거를 말하는 것으로 獨善은 獨善其身으로 士의 인격수양으로서 도덕적 善의 실천을 의미한다. 이것이 瀾回路關이라 할 수 있는

14) 『栗谷全書』, 卷二, 詩.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p.122.

니, 곧 학문을 정치의 방도로 보고 士가 독서하는 목적을 벼슬에 두는 올바른 지 못한 士風과 풍속을 돌려 학문을 선비의 인격수양의 요체로 보고 그 목적을 도의 실천에 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簡編新은 퇴계가 陶山隱居期에 이룩한 학문적 업적으로서 著述을 의미한다.

따라서 퇴계의 獨善하며 학문한 도산은거는 士의 正路요 모범으로 士風과 풍속에 미친 공효를 생각할 때 또한 하나의 兼善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그의 은거는 이욕을 경계하며 心の 明體를 涵養하고 心の 用을 省察하고자 하는 敬의 자세에서 비롯된 理의 生活이다.

IV. 賞心

陶山言志

山堂이 반이나 이미 이루어짐을 스스로 기뻐하노니
山에 살아 오히려 몸소 밭갈이에 힘 쓸 수 있노라
책을 이 서당으로 옮겨오니 점점 옛 책상자는 비고
대를 심어 보고 또 바라보니 새 죽순이 돌아나네
시냇물 흐르는 소리가 고요한 밤을 방해한다고 느끼지 못하겠고
또다시 山色이 좋은 개인 아침을 사랑하노니
비로소 알겠도다! 옛부터 山林에 묻힌 선비
세상만사 온통 잊고 그 이름 숨기려던 뜻을

自喜山堂半已成 山居猶得免躬耕
移書稍稍舊龕盡 植竹看看新笋生
未覺泉聲妨夜靜 更憐山色好朝晴
方知自古竹林士 萬事渾忘欲晦名

自喜山堂半已成 山居猶得免躬耕은 陶山에 隱居하여 성현의 글을 읽으며 이치를 궁구하는 퇴계 자신의 생활을 읊은 것으로, 제목인 陶山言志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는 학문하는 정신생활을 노래한 것이나 겉으로 보기에 는 소

박한 산림생활에 불과하다.

곧 泉石膏育으로서 도산은 거의 즐거움을 말한다. 그런데 植竹看看新莖生은 도산의 「節友社」를 비롯한 못 경물에 대한 감상을 말하며 未覺泉聲妨夜靜은 시냇물 소리를 들으며 절대고독의 경지에서 자연의 음향미에 대한 감상안이 잘 나타나 있다. 특히 更憐山色好朝晴에서는 景物 중심에서 벗어나 대자연의 신비로움에 대한 감상안과 함께 한 점 塵埃의 흔적이란 찾아 볼 길이 없는 청고한 산림생활의 즐거움을 알 수가 있다.

곧 은거로 말미암아 산수와 자연의 경물을 감상하면서 느끼는 마음의 한가로움에서 대자연 속으로 飛翔하는 정신의 淸高함과 세속적 집착과 私心으로부터 벗어난 청신한 마음의 경지를 의미한다. 이것이 곧 賞心이다.

賞心이란 용어는 산수문학을 창시한 謝靈運이 처음 사용하였는데¹⁵⁾ 산수를 즐겁게 음미하는 사람의 감정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산수문학을 탄생케 하는 근거이며, 이 賞心에 의하여 비로소 산수미가 발견되는 것이니, 퇴계의 천석고황이 산수문학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賞心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퇴계의 도산은거는 學問과 賞心이 어우러진 학자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의 산수문학 속에 학문적 이치의 세계가 반영되어 있음은 체언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음의 시를 살펴보자.

賞花

한 번 꽃이 피어 또 한 번 새롭나니
 차례로 하늘은 나의 貧賤을 위로하누나
 造化는 무심히 다시 얼굴을 내밀고
 乾坤은 말없이 스스로 봄을 머금었도다
 시름을 씻고자 술을 부르니 새들이 서로 권하고
 뜻을 얻어 시를 쓰니 북에 神이 있구나
 오로지 擇事는 모두 내 손에 달렸으니
 두어라 별아 나비들이 날을 대로 날아라

15) 小尾郊一, (윤수영 譯), 『中國文學 속의 自然觀』, (강원대 출판부, 1988), pp.426~430.

一番花發一番新 次第天將慰我貧
造化無心還露面 乾坤不語自含春
澆愁喚酒禽相勸 得意題詩筆有神
詮擇事權都在手 任他蜂蝶謾紛紜

제목 「賞花」는 꽃을 감상하다란 뜻이지만 시 전체로 보아서 꽃에 대한 자세 한 묘사로서 외형적인 형식미는 잘 나타나 있지 않다. 단지 次第天將慰我貧에서 꽃이 피는 것을 바라보며 생활의 즐거움을 찾는 선비의 소박한 모습을 느낄 수가 있을 뿐이다.

造化無心還露面 乾坤不語自含春은 꽃이 피어 있는 상태에 대한 묘사이지만, 퇴계는 피어있는 꽃을 보면서 그 꽃을 피우게 한 대자연의 이법을 직관에 의하여 洞見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것은 퇴계가 대단히 주관적인 입장에서 꽃을 감상하고 있음을 알게 하는데, 퇴계의 주관은 곧 성리학자로서 꽃을 思索의 대상으로 의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꽃은 단순히 자연의 경물로서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로서 말없는 대자연의 이법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있는 하나의 존재로서 인식되어지며, 나아가 자연경물이라는 객관에 성리학적 이치가 移入됨으로써 산수시에 理致적인 성격이 강하게 된다. 퇴계의 학문은 공리적인 목적만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다.

또 퇴계의 학문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愛智的 관점에서 출발하는 예지의 발견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퇴계의 성리학적 이념은 理로써 대표되는데, 理란 대자연의 법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문적 입장에서 본다면 진리이고 도덕적 가치의 면에서 본다면 그것은 곧 선을 의미한다. 이 도덕적 선은 당위로서의 선행을 요구하게 되는데 퇴계의 은거는 선비로서 의를 실행하고자 하는 자기의지의 실천으로서 도덕적 선행이다. 따라서 학문의 眞은 행위로서 도덕적 善과 일치하게 되는 것이니 이것은 곧 지행일치로서 퇴계에게는 지고의 가치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퇴계의 학문이란 곧 이 지행이 일치하는 지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생산적 활동으로서 적극적인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궁극의 목표요 이념이다. 따라서 퇴계에게 있어서 학문이란, 학문 그 자체를 사랑하는 애지적 관점에서 수행되는 가치추구의 활동으로서 학문이 방편으로서가 아니라 목적으로 의식되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퇴계의 美意識이 형성되는 것이다.

退溪 山水文學의 泉石膏育과 賞心

마찬가지로 도덕적 선이 어떤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방편으로서가 아니라 선 자체를 목적으로 사유하게 되어 당위로서 선행이 요구되어지며 또 추구하게 될 때 이 흠 내지 善行도 아름다움의 대상으로 사유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퇴계는 미학의 관점에서 事와 物을 思惟해 본 적이 없지만, 美란 지고의 가치로서 목적으로 추구되어지는 것이므로 퇴계에게 있어서 학문의 진리와 행위원리로서의 善과 當爲로서의 善行은 일생을 통하여 지고의 가치로 추구되어졌던 것이며, 생활 속에서 실행되어졌던 것이다. 따라서 도덕적 선과 학문의 진리는 퇴계의 일생을 통하여 목적으로 추구된 理想價値인데 이 兩者는 미적 대상으로서 미의식 속에서 통일되어진다.

그런데 퇴계의 이러한 이념적 요소를 관념으로 표출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자연의 경물이나 산수를 매개로 하여 예술형식 속에 美的으로 형상화하였다. 이것을 퇴계의 예술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학문과 도덕적 행위가 지고의 가치인 이념으로서 문학작품 속에 구체화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글에서 이념을 노래하되 관념화하는 것을 경계하는 퇴계의 입장을 잘 알 수가 있다.

간혹 문안하는 것, 情懷를 서술하는 것, 산수구경에 관한 것, 시국을 비판하고 세속을 염려하는 것 같은 긴절치 않아 보이는 한수작도 끼여 둔 것은 (중략) 그렇게 함으로써 儒道者의 기상을 그 풍채와 신운 속에서 찾아보는 것이 정심한 의리에만 힘쓰고 불긴한 일은 모두 시시하게 여기어 도리어 고독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깊지 않을까 한다. (중략) 節要 가운데 『答呂伯恭書』를 수록했는데 그 첫머리에 “요 며칠 새 매아미 소리 더욱 맑아 들을 때마다 당신을 생각하게 되오”하는 말이 실려 있는 것을 보고 南時甫군이 내게 편지하여 이따위 군소리(歌後語)를 취해서 무엇하느냐고 한 일이 있었다. 그때 내가 대답한 말을 지금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대의는 ‘그것을 군소리라고 보면 군소리요, 군소리 아니라고 보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했던 것 같다. (중략) 나는 평소에 이런 것을 매우 좋아하여 夏月에 녹음이 우거지고 매미소리 귀에 가득할 때를 당하면 마음 속으로 두 선생의 풍운도 庭華와 같이 한가한 물건이 라고 생각되며, 그것을 보면 곧 濂溪의 一般意思를 생각하게 된다.¹⁶⁾

16) 이상은, 『退溪의 生涯와 學問』, (서문당, 1977), p.145에서 재인용.

윗 글은 퇴계가 『朱書節要』를 편찬하였을 때 제자 李仲久(湛)가 『朱書節要』 속에 다소 긴절치 않은 이야기까지 실어 놓았다고 불만을 표한 데 대한 답서이다.

퇴계는 성리학의 이치를 설명하면서도 관념적으로 풀이하는 것을 경계하였으니 “儒道者의 기상을 그 풍채와 신문 속에서 찾아보는 것이 정심한 의리에 만 힘쓰고 불긴한 일은 모두 시시하게 여기어 도리어 고독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깊지 않을까 한다.”에서 잘 알 수가 있다.

그 긴절하지 않으며 더구나 南時甫가 군소리(歇後語)라고 한 것 중에서 산수구경에 관한 것은 곧 산수문학이 짝트는 전초 단계로서 필수적인 것이다. 『주서절요』는 주자가 그 문인들과 주고 받은 서찰을 모아서 퇴계가 편찬한 책이다. 퇴계는 『주서절요』 序文에서 서찰은 인재의 高下와 학문의 深淺에 따라서 병에 맞춰 약을 주고 물에 응해 추를 다는 방법을 써서 혹은 추키고 혹은 인도하고 혹은 救助하고 혹은 격려하여 나아가게 하고 혹은 물리쳐 경고해 주기도 하니 心術의 은미한 사이에 털끝만한 惡도 용허하지 않으며 의리를 캐어냄에 있어 호리의 차도 앞질러 밝혀낸다.¹⁷⁾라고 하였다. 그런데 李仲久는 의리를 밝힘에 있어서 산수구경과 같은 것은 긴절치 않다고 하였고, 南時甫는 군소리(歇後語)라고 하였다.

그러나 퇴계는 산수구경과 같은 긴절치 않은 것과 군소리(歇後語)같이 보이는 한수작이야말로 인재의 고하와 학문의 심천에 따라 혹은 추키고 혹은 인도하고 혹은 구조하고 혹은 격려하여 나아가게 하고 혹은 물리쳐 경고해 주려는 주자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따라서 퇴계는 평소에 이런 것을 매우 좋아하여 夏月에 녹음이 우거지고 매미 소리가 귀에 가득한 것을 들으며 濂溪의 一般意思를 생각하게 된다고 했을 것이다.

곧 퇴계는 대자연의 변화를 바라보면서도 항상 理를 터득하려 한 것이며 한 사물도 그저 지나치지 않았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자연 속에서 理를 터득하고 관조하려 했을 따름이며 어떤 이치를 가지고 자연의 현상을 성급히 해석하려고 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으니 퇴계의 산수문학, 특히 산수시 속에서는 이념적 요소가 스며든 이념미를 노래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생경한 개

17) 같은 책, p.142에서 재인용.

님의 표출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

그러며 다음의 시를 살펴보자.

步自溪上踰山至書堂

가파른 벼랑에 꽃이 피어 봄은 더욱 고요한데
시냇가 나무에 새가 울어 물은 한층 잔잔하구나
우연히 산 뒤에서 童子冠子를 데리고
한가히 산 앞에 이르러서는 考槃을 문노라

花發巖崖春寂寂 鳥鳴澗樹水潺潺
偶從山後携童冠 閒到山前看考槃

이 시에 대하여 言行錄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德弘이 詩에는 沂上之樂이 있으니 그 樂은 日用之常의 上下同流各得其所之妙가 아님이까 하니 先生께서 말씀하시되 '비록 이러한 意思가 있기는 하지만 推言이 너무 지나칠 뿐이다' 라고 하셨다.¹⁸⁾

윗 글에서 退溪가 "비록 이러한 意思가 있기는 하다." (雖略有此意思)라 함은 다소 그 뜻을 옳게 여김이니, 이 詩 속에 上下同流各得其所之妙, 즉 大自然의 法則이라는 理想的 要素가 들어 있음을 인정하고는 있다. 그러나 "推言이 너무 지나칠 뿐이다." (推言之太過高耳)라고 한 것을 보면 退溪의 本意는 理致를 노래함에 있지 아니함을 알 수가 있으니, 退溪는 德弘이 이 詩를 日用之常의 上下同流各得其所之妙라는 理致로만 파악하고 君子의 樂山水하는 즐거운 심정 즉 賞心을 간과한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하겠다. 다음과 같은 글에서도 이 賞心을 중하게 여김을 잘 알 수가 있다.

前日의 마음의 병은 바로 憂患으로 因하여 생긴 것인데 이제 시간이 지난 것이 이미 오래 되었고 환경도 새로운데 어찌하여 아직까지 快豁하지 않은 것입니까. (中略) 보내온 편지를 자세하게 읽어보고 병이 우연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섭양과

18) 『국역 退溪集』(Ⅱ), 言行錄, 樂山水, (고전국역총서, 1976), p.568.

德弘問 詩有沂上之樂 其日用之常上下同流各得其所之妙也 先生曰 雖略有此意思 推言之太過高耳

치료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두 泚이 평소에 몸소 겪은 바이기에 그 이야기를 대략 별지에 적어 보냅니다.¹⁹⁾

윗 글은 南時甫가 금강산으로 떠나면서 보내온 편지에 대한 답장이다. 이제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그 治藥의 방도는 공이 스스로 깨달은 바 제일 먼저 모름지기 世間の 窮通得失과 榮辱利害一切를 마음에 두지 않아 마음에 쌓지 않아야 합니다. (중략) 이렇게 하여 무릇 日用之間에 酬酌을 적게 하고 기호를 절제하며 마음을 비워 한가롭고 편안하고 즐겁게 하여 지내면서 圖書와 화초같은 것을 玩賞하고 溪山의 魚鳥같은 것을 보는 즐거움이 뜻을 기쁘게 하고 情에 맞아 그 항상 접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아서 心氣로 하여금 늘 和順한 지경에 머물게 하여 거스르고 어지럽게 하여 성내고 원망함을 일으키는 일이 없게 하는 이것이 要法입니다.²⁰⁾

윗글에서 '화초를 완상'한다든가 '溪山의 魚鳥를 보는 것'은 곧 자연에 문혀서 자연의 경물과 산수를 완상함이다. 그리고 이러한 완상을 통하여 "보는 즐거움이 뜻을 기쁘게 하고 정에 맞아 그 항상 접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아서 심기로 하여금 늘 화순한 지경에 머물게"하는 것은 곧 賞心을 의미하는 것이고 賞心은 또 '마음의 병'을 낳게 하는 공로가 있으니 성리학적 측면에서 말한다면 곧 心體를 存養함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퇴계는 더욱 산수구경에 있어 賞心을 중히 여겼던 것이다.

春風에 花滿山하고 秋夜에 月滿臺라

四時佳興이 사름과 혼가지라

호물며 魚躍鸞飛 雲影天光이아 어니그지 이슬고 (도산십이곡)

初章은 도산의 四時佳景을 읊은 것이며 중장은 도산의 사시가경을 바라보면

19) 『陶山全書』, 一, 卷十六, 書, 答南時甫 (영인본, 퇴계학연구원, 1988), p.386.

前日心恙 正因憂患而作 今歷時既久 事往境新 如何尚未快耶 (중략) 細讀來喻 知所患亦非偶然 攝治誠不可忽 皆澁素所身歷 其說略具別紙

20) 『陶山全書』, 一, 卷十六, 書, 答南時甫 (영인본, 퇴계학연구원, 1988), p.387.

其治藥之方 公所自曉 第一須先將世間窮通得失榮辱利害一切 置之度外 不以累於靈臺 (중략) 如是而凡日用之間 少酬酌 節嗜欲 虛閒恬愉以消遣 至如圖書花草之玩 溪山魚鳥之樂 苟可以娛意適情者 不厭其常接 使心氣 常在順境中 無沸亂以生曠患 是爲要法

서 느끼는 도산생활의 사시가흥을 노래하였으니 賞心이다. 그런데 사시가흥이 사람과 한가지라 한 것은 분명 興의 차원에서 동일함을 認識하게 되는 것이다. 곧 도산의 사시가경은 대자연의 법칙인 理의 작용에 의한 자연의 본래적인 모습이다.

퇴계의 도산은저도 세속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본래적인 모습을 회복한 理的 생활이다. 그러므로 도산의 사시가경을 바라봄에 그 흥이 끊임없는 것이며 또한 자신의 도산생활도 그 흥이 다함이 없는 것이다. 동시에 사시가흥의 所以然이 자연의 법칙으로서의 理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자신의 도산은거를 통하여 느끼는 흥은 선비로서 행위의 당연함 즉 도덕적 선의 실천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이도 또한 곧 理의 회복에서 비롯되는 興인 것이다.

따라서 興의 소이연이 동일한 것을 깨닫게 되어 “四時佳興이 사람과 한가지라”라고 감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지에서 萬事와 萬物을 바라볼 때 그 理의 流行과 秩序의 정연함을 洞見하고 감탄하게 되나니 “하물며 魚躍鳶飛 雲影天光아야 어찌그지 이슬고”라고 노래하게 된다.

『詩經』 「大雅」 「旱麓」에 보면 魚躍鳶飛는 “鳶飛戾天 魚躍于淵”이라 되어 있으며 『大學』을 살펴보면 子思는 魚躍鳶飛에 대하여 “以明化育流行 上下昭著 莫非此理之用”이라 하였으니 이는 곧 질서와 조화로움을 잃지 않은 理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종장의 魚躍鳶飛 雲影天光은 질서와 조화로움을 잃지 아니한 理의 세계를 의미하며, 동시에 造化流行이 정연한 대자연의 세계를 表象한다고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윗 시조를 분석해 본다면 초장은 감동을 동반한 서경이다. 즉 천지에 가득 찬 현상계인 형상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다. 이러한 형상은 현실계에서 동시에 공존하는 서경이 아니라 퇴계의 관념 속에서 통일되어지는 서경이다. 따라서 감동을 동반하여 서경이 관념 속에서 통일되어지는 것이며, 이것은 理의 경지에서만이 가능하다. 理의 경지에서 보면 四時佳景의 所以然과 四時佳興의 所以然은 동일하다. 왜냐하면 사시가경의 소이연은 자연의 이법인데 이 사시가경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사시가흥 곧 賞心の 소이연도 역시 자연의 이법에 대한 감동이며, 자연의 이법이 곧 대자연의 법칙이며 우주의 眞有인 理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중장은 理의 경지에서 본 자연의 사시가경과 도산은거의 즐거움이 理의 세계로 歸一하고 있음을 깨닫는 기쁨을 노래한 것이다.

V. 結 論

그러므로 四時佳景을 감상하는 賞心의 무한함과 도산은거를 통하여 도덕적 善을 실천하며 학문하는 생활의 즐거움이 그 所以然에 있어 하나임을 無言의 대자연 속에서 깨닫게 되는 감동을 魚躍鸞飛 雲影天光에 비유하여 노래하였으니 退溪의 山水詩 속에서 노래되어지는 이념적 요소는 賞心에 의하여 山水美로 昇華되어짐을 알 수가 있다.